

# 진도의 벽파정과 그 제영

김신중\*

## < 차례 >

1. 머리말
2. 벽파정의 내력과 성격
3. 벽파정제영의 존재 양상
4. 맺음말

## <국문초록>

진도의 벽파정은 많은 제영이 남아있는 매우 유서 깊은 누정이다. 그런 벽파정의 문화사적 의미와 벽파정제영의 존재 양상을 살핀 것이 이 글이다.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벽파정의 모습을 개관하며 연구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벽파정의 창건과 퇴락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폈다. 즉 고려 중기 또는 그 이전에 건립되어, 1924년 이전의 일제강점기에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 무엇보다도 해상 교통의 요지에 세워진 공루로서, 벽파정의 건립 위치가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벽파정에는 왕명을 띤 관료나 불우한 유배객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로 인해 벽파정은 이별의 누정이라는 매우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음 문헌전승 내용을 통해 벽파정제영의 존재 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공공문헌과 개인문집을 통해 30여 명의 작자가 작품을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신분별로는 벽파정의 승경을 찬탄한 관료들의 제영과, 불우한 처지를

\* 전남대학교

한탄한 유배객의 제영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작자로는 고조기, 채보문, 조희직, 홍적, 김정, 노수신이 지목되며, 특히 차운이 많은 홍적의 작품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별의 누정으로서 벽파정의 성격이 그 제영에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남은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핵심어 : 진도, 벽파정, 이별의 누정, 벽파정제영, 관료, 유배객

## 1. 머리말

벽파정(碧波亭)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에 있었던 누정이다. 벽파정이라는 이름은 마치 망망한 바다 푸른 파도 위에 떠 있는 한 점 섬을 떠올리게 한다. 그 이름에 걸맞게 벽파정은 벽파진(碧波津)의 언덕 위에 푸른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세워졌다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 중기에는 이미 존재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들어 언제인가 모습을 감췄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벽파정은 비록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누정문화나 누정문학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대상이다. 우리 누정의 역사가 삼국시대의 궁궐 건축까지 소급되어 올라간다고는 하나, 누정 건립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고려 때의 일이었다. 고려 때 지방의 누정은 주로 관청이나 사찰을 중심으로 많이 건립되었는데, 벽파정은 관청에서 조영하였던 공루의 하나였다. 벽파정이 있는 전남의 경우를 보면, 그 연원이 고려시대로 확인되는 누정으로 관청에서 세운 진도의 벽파정과 순천의 연자루(燕子樓), 사찰에서 세운 송광사의 침계루(枕溪樓)와 백양사의 쌍계루(雙溪樓), 민간에서 세운 나주의 쌍계정(雙溪亭)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벽파정은

건립 시기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건립 위치, 기능, 성격, 제영 등에 있어서도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벽과정의 이런 면모 때문에 근래 일부 연구에서 벽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1)</sup> 대개 진도의 지역문화를 따지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논급되었는데, 벽과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벽과정을 독립된 논제로 다룬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벽과정의 내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벽과정제영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벽과정의 내력과 성격

진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벽과진은 오랫동안 진도와 다른 세계를 이어 주던 주요한 관문이었다. 한편으로 해남의 삼지원을 통해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국을 왕래하는 뱃길도 열렸다. 따라서 과거 벽과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진도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요, 왕명을 수행하는 관료 및 많은 유배객과 유람객들이 이곳을 거쳤다. 그러기에 일찍부터 이런 길손들을 위로하고, 푸른 바다에 임한 아름다운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누정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바로 벽과정이었다.

벽과진에 벽과정이 언제 처음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록에 따라서는 고려 희종 3년(1207)에 주로 중국 남송을 오가는 사신들의 휴식처로 건립되었다고도 하고, 고려 원종 4년(1263) 김방경(金方慶)이 왜구

1) 강봉룡, 「진도 벽과진의 고·중세 ‘해양도시’적 면모」,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집, 역사문화학회, 2005.  
김덕진, 「유배인이 남긴 진도 지역정보」, 『호남문화연구』 제43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8.

를 격파한 기념으로 세웠다고도 한다.<sup>2)</sup> 하지만 『동문선(東文選)』이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벽과정의 연원은 적어도 그보다 빠른 고려 중기인 12세기 초·중반까지 소급된다. 예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인종과 의종 연간에 활동하였던 고조기(高兆基)의 작품이 벽과정의 제영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조기는 제주 출신이다. 그런 그에게 벽과정은 고향을 오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따라서 시문에 능했던 그가 제주를 오가는 길에 벽과정에 올라 제영을 남긴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런데 『동문선』에는 고조기의 제영이 <벽과정>이 아닌 <진도강정(珍島江亭)>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곧 ‘진도강정’과 ‘벽과정’이 같은 누정인가, 아니면 다른 누정인가이다. 그 대답은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 ① 진도강정과 벽과정은 같은 누정의 다른 이름이다.
- ② 진도강정과 벽과정은 같은 장소에 차례로 세워진 다른 누정의 이름이다.
- ③ 진도강정과 벽과정은 건립 장소와 이름이 전혀 다른 누정이다.

만약 ①의 경우라면 벽과정의 창건 시기는 당연히 고려 희종 때가 아닌, 고려 중기까지 소급된다. 또 ②와 같이 벽과정에 진도강정이라는 누정이 먼저 있었고 그 자리에 다시 벽과정이 세워진 것이라도, 역시 벽과정의 내력을 고려 중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 그런데 ③처럼 진도강정과 벽과정이 전혀 다른 누정이라면,<sup>3)</sup> 고조기의 제영은 벽과정과 아무런 관련도 없게 되어 그 창건 시기를 소급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① 또는 ②라는 입장이다. 즉 진도강정

2) 김신중, 「전남의 누정과 그 연구 동향」, 『국학연구론총』 제8집(택민국학연구원, 2011), 243쪽.

3) 실제로 진도강정과 벽과정을 별개의 누정으로 분류한 조사보고도 있으며(『호남문화연구』 제18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385·388쪽), 진도강정을 진도강가에 있는 정자로 인식한 연구도 있다(이구의, 「고조기의 삶과 시」, 『동방한문학』 제17권, 동방한문학회, 1999, 160~162쪽).

과 벽파정은 같은 누정이었거나, 아니면 진도강정이 벽파정의 전신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후대의 문헌에서 고조기의 작품을 한결같이 벽파정제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강정(江亭)’이라는 이름에 끌려 그것을 해변이 아닌 강변에 위치한 누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벽파정이 위치한 현장의 독특한 지형에서 말미암은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울돌목으로 잘 알려진 명량해협을 사이에 두고 벽파진에서 맞은편 해남의 삼지원을 향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바다는 마치 커다란 강줄기인양 꿈틀대며 흐른다. 강정은 바로 이러한 정경을 취해 붙여진 이름이다.<sup>4)</sup> 따라서 벽파정의 창건은 적어도 고려 희종 3년보다는 빠른, 고려 중기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기 이후 고려 의종과 명종 연간에 활동하였던 김신윤(金莘尹)·채보문(蔡寶文)·김극기(金克己)의 제영이 남아있는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이후 벽파정은 조선 세조 11년(1465) 군수 박후생(朴厚生)에 의하여 중건되었다.<sup>5)</sup> 그런데 당시 이숙감(李淑臧)이 쓴 중건기를 보면, 벽파정의 주된 기능은 관청의 공루로서 왕명을 수행하는 사절이나 관리 등 왕인(王人)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군수 박군 후생이 나를 맞이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벽파를 지나오면서 새 누정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요? 오래 전부터 누정이 있었지만, 세월이 또한 오래됨에 거의 다 무너져서, 왕인을 보내고 맞으며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자못 한스러워, 군정에 임한지 수년 만에 재목을 약간

4) 고조기뿐만 아니라 채보문(此亭誰創碧江濱), 김극기(澄江忽上船), 조희직(滿酌滄江水)의 제영에서도 바다를 강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우리 고시가에 바다를 강으로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윤선도 <어부사시사>에 보이는 ‘강촌(江村)’, ‘연강첩장(烟江疊嶂)’, ‘북포남강(北浦南江)’, ‘홍수청강(紅樹淸江)’ 등이 그렇다.

5) 일부에서는 벽파정이 중건된 해가 세종 11년(1429)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중건기를 쓴 이숙감이 단종 2년(1454)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세조 10년(1464) 겸예문에 뽑히고 이어 전라도경차관으로 나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세조 11년(1465)의 착오일 것이다.

모으고 노는 일손을 청하여 공역에 임해, 한 달이 되지 않아 일을 마쳤습니다. 누정이 이루어지자 그대가 마침 왔으니, 어찌 나를 위해 그것을 기록하여 길이 남겨주시지 않겠습니까?”<sup>6)</sup>

조선 건국 이후 한동안 관청에서 주도한 누정 건립이 활발하였다. 이는 물론 새 왕조의 위업과 지방 관리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벽과정의 중건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왕인의 위로라는 공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사실 ‘누대가 때로 유관하며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라는 인식은 당시에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다. 또 이에 더하여 ‘제영이란 물상을 읊조리며 왕화를 노래하고 칭송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sup>7)</sup>

중건 이후에도 벽과정은 정유재란을 겪으며 소실되었다가 난후에 다시 복구되었다. 광해군 10년(1618) 전라도 해안 고을의 속안(續案)을 살피기 위해 진도를 찾아 벽과정에 오른 양경우(梁慶遇)의 기행록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sup>8)</sup> 하지만 벽과정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이 멸망한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 없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그 때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다만 『중증진도읍지(重證珍島邑誌)』에 실린 박진원(朴晉遠)의 제영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sup>9)</sup> 이 책이 발행된 1924년 이전인 것은 분명하다.

또 그 유지가 벽과정의 어디인지도 현재 분명하지 않다. 논자에 따라서

6) 郡守朴君厚生 迎謂予曰 來經碧波 見有新樓者乎 舊有樓 歲且久 頹朽殆盡 無以送迎 勞慰于王人也 予頗恨之 蒞政有年 鳩材若干 請遊手赴功役 不閱月而斷手 樓成而子適來 盍爲我記之 以垂不朽(李淑城, <碧波亭重建記>,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七)

7) 樓臺所以時遊觀而待使臣也 (中略) 又終之以題詠 所以吟詠物像歌頌王化 實不外乎詩與文也(盧思慎 外, <東國輿地勝覽序>)

8) 二十六日甲申 晴 發向珍島郡 行至津頭 所謂碧波亭 隔水蒼茫 極目可望 (中略) 但平時所構傑閣 燬於兵燹 亂後草創 屋制猥卑 修掃無人 鳥雀遺白滿廳(梁慶遇, <歷盡沿海郡縣 仍入頭流 賞雙溪神興紀行錄>, 『霽湖集』 卷之十一)

9) 蹲舞南馳地盡頭 碧波亭子幾經秋 至今不見江山使 題咏空傳古沃州(朴晉遠 外 編纂, 『重證珍島邑誌』, ‘樓亭’條, 1924)

는 ‘오늘날 벽파마을의 당집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기도 하고,<sup>10)</sup> 또 일부에서는 벽파항 입구 해안가 지금은 폐쇄된 ‘목포해양경찰서 벽파선박출입항대행신고서’ 부근이라고도 한다.

한편 벽파정은 지난 역사 속에서 격랑의 현장을 지키기도 하였다. 고려 원종 11년(1270)에 승화후 왕온(王濶)을 추대한 삼별초가 진도의 용장산 성에 와 응거하였을 때의 일이었다. 맞은편 삼지원에 진을 친 김방경의 여몽연합군에 맞서 배중손의 삼별초가 포진했던 곳이 바로 벽파정이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또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명량대첩을 거둔 것도 벽파정 앞바다였다.

이러한 벽파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제영, 그리고 역사적 자취 및 성격에 대해 영조 37년(1761) 김몽규(金夢奎)가 편찬한 『옥주지(沃州誌)』 ‘누정’조의 <벽파정승개기(碧波亭勝槩記)><sup>11)</sup>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다소 길지만, 벽파정의 성격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므로 여기에 전문을 옮긴다.

벽파정의 아름다운 경치는 남쪽 고을에서 으뜸이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에 임하여 파도가 만경이고, 점점이 늘어선 섬들은 원근에서 희미하다. 이 누정에 오르면 곧 이에 슬픔과 기쁨을 겸하게 되어, 소인묵객으로 지나가는 자라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조 이래로 제영한 것이 많다. 그 없어지지 않고 유전되는 것이 고려조 고평장의 오언율시·채상서의 칠언율시·조정언의 절구 두 수·홍하의의 십운 배율이며, 이후에 그것을 잇거나 따른 것 역시 많다. 비록 그 모두를 보존할 수는 없었으나, 문미에 걸어둔 것들이 이 누정에 광채를 더해주고 있다. 어찌 감히 단확에 견주겠는가!

또 그 지나온 자취를 말한다면, 곧 고려조의 상락공이 중류에서 온적을 대패시켰고, 충무공이 상류에서 왜적을 대패시켰다. 고금의 사전에 함께 이어지고 밝게 드러나 있으니, 단지 아름다운 경치를 과칭한 것이 아니라 역시 장쾌한 자취의 유전이다. 성의 동남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 누정은 또한 이별의 누정이다. 가는 자와 머무는 자가 맞잡은 손을

10) 강봉룡, 「진도 벽파진의 고·중세 ‘해양도시’적 면모」, 59쪽.

11) 이 글에는 원래 제목이 붙어있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의 편의를 위해 이 글의 첫 구를 취하여 <벽파정승개기>라 칭한다.

놓으며 말없이 석별하는 정이나, 배에 오른 어떤 사람과 한 가인이 서로 바라보는 초연한 마음에는 저절로 코가 찡해져 눈물이 맺힘을 금하기 어렵다. 어찌 이것이 노로정(勞勞亭)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과 다르겠는가! 역시 슬픔과 기쁨을 겸한다는 말이 있는 까닭이다.<sup>12)</sup>

먼저 남쪽 고을에서 으뜸이라는 벽과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평장사 고조기를 비롯하여 상서 채보문(蔡寶文), 정언 조희직(曹希直), 하의 홍적(洪迪) 등의 소인묵객들이 많은 제영을 남겼음을 말하였다. 또 벽과정의 역사적 자취로 여기에서 고려의 상락공 김방경이 승화후 왕운을 추대한 삼별초를 대과하고, 충무공 이순신이 왜적에게 명량대첩을 거둔 사실을 장쾌한 일로 자부하였다. 그리고 이어 벽과정의 독특한 성격으로 그것이 다름 아닌 이별의 누정임을 강조하였다. 즉 가는 자와 머무는 자가 서로 맞잡은 손을 놓으며 안타깝게 헤어지는 곳이라고 하였다. 벽과정을 예부터 송별의 장소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노로정에 견주었다. 그래서 벽과정에 오르면 슬픔과 기쁨을 겸하여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옥주지』가 편찬된 것이 18세기 중반이니, 이런 인식이 12세기 초·중반의 창건 이후 600년 가량의 세월을 거치며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청에서 세운 공루는 보통 관아에 딸려 있거나, 관내의 명승지에 위치한다. 그 예로 『동국여지승람』 진도군 ‘누정’조에 수록된 망해루(望海樓)는 군의 남문루였고, 주변루(籌邊樓)는 객관 남쪽에 있었다. 또 동백정(冬栢亭)은 군의 남쪽 15리 수백 그루의 동백나무 숲에 있었다. 이에 비해 벽과정은 군의 동쪽 30리 벽과진 나루에 있었다. 즉 다른 누정들과 달리

12) 碧波亭勝槩 甲於南州 前臨碧海 波濤萬頃 点列島嶼 遠近依微 登斯樓也 則悲喜兼焉 騷人墨客之過焉者 有不得不爬囊 故自麗朝以來 題咏者多焉 其不氓[泯]沒而流傳者 麗朝高平章五言律詩 蔡尙書七言律詩 曹正言絕句二首 洪荷衣十韻律詩 而後之續焉 而步之者 亦多矣 雖不能盡其存 而懸楣者 有增光彩於此亭也 豈肯與丹雘比也 且言其往躅 則麗朝上洛公大敗溫賊於中流 忠武公大敗倭賊於上流 古今史傳 相繼昭著 非徒勝槩之誇稱 柳[聊]亦壯跡之流傳也 城東南形勝之處也 此亭又是離亭也 去留分手之際 默然借[惜]別之猜[情] 一般[船]一佳 相望俏[悄]然之懷 自然酸鼻 難禁孕淚 豈是與勞亭之相別異也 亦以有悲喜兼之語也 (『珍島郡邑誌』, 진도문화원, 1987, 21쪽. [ ] 안의 한자 교정은 필자)

교통의 요지에 세워진 것이다. 물론 푸른 바다에 임한 그곳의 경관이 아름답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나루터 길목이라는 입지가 보다 중요하였다. 그런 입지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벽과정을 기점으로 길은 나누어지고, 또 합쳐졌다. 따라서 벽과정은 이별과 만남 또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길 위의 분기점으로서, 특히 이별의 장소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벽과정은 경치가 아름답고 역사적 자취가 서린, 진도의 관문 벽과진의 언덕에 상징처럼 서 있었다. 그 내력은 적어도 고려 중기까지 소급되며, 주로 왕인의 위로라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왕인 외에도 많은 유배객이나 유람객들이 이곳을 거치며 제영을 남겼다. 그러는 사이 벽과정은 길 위의 분기점으로서, 특히 이별의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슬픔과 기쁨이 벽과정의 대표적인 두 감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슬픔은 주로 안타까운 이별에서 기인하였고, 기쁨은 아름다운 경치와 장쾌한 사적에서 촉발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들에 주목하면서 이제 장을 바꾸어 벽과정제영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3. 벽과정제영의 존재 양상

누정제영을 전해주는 기록전승의 대표적인 방식은 현판전승과 문헌전승이다. 그런데 벽과정은 건물 자체가 이미 오래 전에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현장의 현판을 통한 전승 역시 이미 오래 전에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는 각종 문헌을 통한 전승만이 이어지고 있다.

문헌전승에 있어서 벽과정제영을 전하는 각종 문헌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옛 문헌이나 지리지 및 향토지와 같은 공공의 문헌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문집이다. 전자가 공적인 요구에

의해 주로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이라면, 후자는 특정 인물의 유고를 모아 주로 사적인 동기에서 편찬한 것이다. 때문에 누정제영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문헌을 통한 전승에 해당 누정이 소재한 현장 수용자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개인문집을 통한 전승에는 개별 창작자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벽과정제영의 존재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공공문헌을 통한 전승과 개인문집을 통한 전승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옛 문선, 지리지, 향토지 등 공공문헌을 통한 전승이다. 현재 남아 있는 벽과정제영의 창작은 앞 장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고려 중기 고조기의 <진도강정>에서 비롯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 전기에는 아직 개인문집의 편찬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벽과정제영의 문헌기록은 자연스레 조선 전기의 공공문헌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종 때 편찬된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이다. 이후 조선 후기에 김몽규가 편찬한 『옥주지』(1761)와, 근대에 박진원 등이 편찬한 『중증진도읍지』(1924)가 벽과정제영을 선별적으로 정리 수록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헌들에 어떤 작자의 작품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조선 초까지의 우리나라 역대 시문집인 『동문선』에 실려 있는 벽과정제영은 모두 4수이다. 고조기·김신윤·채보문·이숙감의 시가 그것이다. 고조기의 작품은 오언율시로 <진도강정>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고, 김신윤의 작품 역시 오언율시로 <진도강정차고안부운(珍島江亭次高按部韻)>이라 하여 그것이 곧 고조기의 <진도강정>에 차운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채보문의 작품은 칠언율시로, 그 제목은 <진도벽과정차최안부영유운(珍島碧波亭次崔按部永濡韻)>이다. 제목으로 보아 이 작품이 고려 명종 때의 인물인 최영유의 <진도벽과정>을 차운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원운이라 할 최영유의 <진도벽과정>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세조 때 전라도경차관으로 나와 <벽과정중건기>를 쓴 이숙감의 작품은 오언율시 <망벽과정(望碧波亭)>이다.

조선의 전국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은 진도군의 ‘누정’과 ‘제영’조에

벽파정제영을 수록하였다. ‘누정’조에 이숙감의 중건기와 함께 김신윤·고조기·채보문·이원(李原)의 시가, ‘제영’조에 김극기의 시가 실려 있다. 모두 특정한 제목 없이 본문만 수록하였다. 그 중 김신윤·고조기·채보문의 제영은 『동문선』에 수록된 것과 같은데, 다만 채보문의 작품은 표현 어구에 있어서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영’조에 실린 김극기의 작품은 고조기의 <진도강정>을 차운한 오언율시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언급을 요하는 것이 이원의 작품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이원의 작품으로 사패(詞牌) <무산일단운(巫山一段雲)> 중의 ‘벽파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진도의 벽파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울산 벽파정의 제영이기 때문이다. 진도의 벽파정과 이름이 같은 울산 벽파정은 ‘울산팔영(또는 蔚州八景)’의 하나인데, 고려의 정포(鄭誦)와 이곡(李穀)이 <울주팔경>을 사제(詞題)로 하여 <무산일단운>체로 먼저 작품을 제작한 바 있다.<sup>13)</sup> 그리고 이를 차운한 것이 바로 이원의 ‘벽파정’이다.<sup>14)</sup> 따라서 이원의 작품은 마땅히 진도의 벽파정제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이어 『중증진도읍지』도 이 작품을 벽파정제영으로 수록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18세기 중반에는 진도의 향토지인 『옥주지』가 벽파정제영을 수록하였다. 『옥주지』는 ‘누정’조에 앞의 제2장에서 인용 설명한 <벽파정승개기>를 먼저 싣고, 이어 ‘제영’조에서 ‘벽파정전후제영(碧波亭前後題詠)’이라 하여, 고조기·채보문·조희직(曹希直)·원치도(元致道)·신규(申奎)·이경의(李景義)·신백주(申伯周)·김진상(金鎭商)<sup>15)</sup>의 작품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별도로 ‘제영’조를 두고 홍적(洪迪)의 <제벽파정(題碧波亭)> 서두를 특별히 인용하였다. “옥주성 밖의 벽파정, 형승을 두루 말하면 동정호보다 낫구나(沃州城外碧波亭 形勝周道勝洞庭)”라 한

13)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Ⅲ(민족문화추진회, 1978), 310~315쪽 참고.

14) 류기수, 「중국과 한국의 <무산일단운>사 연구」, 『중국학연구』 제8집(중국학연구회, 1993), 223쪽.

15) 『옥주지』에는 퇴어자(退漁子) 김진적(金鎭商)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김진상(金鎭商)의 잘못이다.

구절이 그것이다.

『옥주지』의 이 아홉 명 작자 중 고조기와 채보문의 제영은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에도 이미 수록된 것인데, 특히 채보문의 제영은 두 문헌 중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고려 말 인물인 조희직의 작품으로는 오언절구 2수가 수록되었다. 나머지 여섯 명은 모두 조선시대의 인물들인데, 김진상은 채보문을 차운한 칠언율시를 남겼다. 그 외 작품들은 모두 10운의 칠언배율로, 홍적의 <벽과정>이 맨 먼저 이루어진 원운이고 나머지는 모두 차운이다. 때문에 『옥주지』의 편자는 홍적의 제영에 담긴 벽과정 승경을 상찬한 내용과 함께 그것이 원운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여 별도의 ‘제영’조에 특별히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일제강점기인 1924년의 『중증진도읍지』에 실린 제영이다. 이 책에서는 ‘누정’조에 고조기·김신운·김극기·채보문·김진상·조희직·박근손(朴根孫)·원치도·이경의·이희풍(李喜豐)·박진원의 작품을 차례로 수록하였다.<sup>16)</sup> 이 열한 명의 작자 중 박근손·이희풍·박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의 제영은 이미 앞에서 살핀 것과 같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채보문의 경우를 보면, 이 책에서도 『옥주지』와 마찬가지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따르고 있어, 이때까지 벽과정 현장에서는 채보문의 제영으로 『동국여지승람』 수록 텍스트를 보편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책에 비로소 그 이름이 보이는 박근손·이희풍·박진원은 모두 근대의 인물들로,<sup>17)</sup> 이들에 의해 전통적인 방식의 벽과정제영이 마지막으로 창작되었음을 보게 된다.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중증진도읍지』가 편찬되었던 당시에 벽과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따라서 벽과정의 퇴락과 더불어 제영 창작과 수용의 현장도 함께 사라졌으며, 벽과정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빠르게 멀어져

16) 이밖에도 이원의 사(詞)가 수록되어 있으나, 그것은 울산 벽과정의 제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하였다.

17) 조희직의 오언절구 제2수를 차운한 박근손을 『진도군지』 하(진도군지편찬위원회, 2007, 443쪽)에서는 고려시대의 인물로 분류하였으나, 수록 문헌의 성격으로 보아 근대의 인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갔다.

이후 벽과정제영은 1976년의 『진도군지』(진도군지편찬위원회)와, 1988년의 『호남문화연구』 제18집(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다시 한 번 정리된 바 있다.<sup>18)</sup> 하지만 여기에는 새로 추가된 작품이 없고, 현장이 사라진 지 오래된 현대 문헌의 수록 사실은 창작 및 수용과 관련하여 벽과정제영의 존재 양상을 살피려는 이 글의 의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공공문헌을 통한 벽과정제영의 전승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공공문헌에 수록된 벽과정제영

번호	작자명(시기)	제영명	형식	수록문헌 <sup>19)</sup>
1	高兆基(고려 예·인·의종)	珍島江亭	오언율시	문선, 승람 옥주, 읍지
2	金莘尹(고려 의·명종)	珍島江亭次高按部韻	오언율시	문선, 승람 읍지
3	蔡寶文(고려 의·명종)	珍島碧波亭次崔按部永濡韻	칠언율시	문선, 승람 옥주, 읍지
4	金克己(고려 명종)	무제	오언율시	승람, 읍지
5	曹希直(고려 공민왕)	무제	오절 2수	옥주, 읍지
6	李淑臧(조선 세조)	望碧波亭	오언율시	문선
7	洪 迪(1549~1591)	題碧波亭	칠언배율	옥주
8	李景義(1590~1640)	무제	칠언배율	옥주, 읍지
9	申伯周(1646~ ? )	무제	칠언배율	옥주
10	申 奎(1659~1708)	무제	칠언배율	옥주
11	元致道(조선 숙·영조)	무제	칠언배율	옥주, 읍지

18) 『진도군지』에는 고조기, 김신윤, 채보문, 조희직, 홍적, 이경의, 원치도, 김진상, 박진원의 제영이, 『호남문화연구』에는 고조기, 채보문, 조희직, 이경의, 신백주, 신규, 원치도, 김진상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12	金鎭商(1684~1755)	무제	칠언율시	옥주, 읍지
13	朴根孫(근대)	무제	오절 1수	읍지
14	李喜豐(근대)	무제	칠언절구	읍지
15	朴晉遠(근대)	무제	칠언절구	읍지

위 15명의 작자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①고려 중기 이후 조선 초까지의 인물이 6명(1~6)이고, ②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인물이 6명(7~12)이며, ③근대의 인물이 3명(13~15)이다. 그런데 ①에 해당하는 초기 작자의 작품은 주로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중앙에서 펴낸 관찬 문헌에 수록 전승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주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한 문인이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당시의 벽파정이 진도라는 지역을 넘어 중앙에까지 잘 알려진 누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이에 비해 ②에 해당하는 작자의 작품은 모두 『옥주지』를 통해 전승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곧 이들의 작품이 중앙보다는 주로 벽파정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수용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출신지로 보았을 때 ①과 ②의 작자는 모두 진도 사람이 아닌 외지인이다. 그 중 고조기는 관료로서 벽파진을 통해 고향을 오갔던 제주 사람이고, 이숙감과 홍적은 경차관의 신분으로 진도를 다녀갔다. 보다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나머지 인물들도 거의 관료로서의 활동에 방점이 놓인다. 유독 조희직만이 유배를 통해 진도와 인연을 맺었다. 이에 비해 ③은 모두 진도 사람으로, 근대에 와서야 현지인의 작품도 전승문헌에 수록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 수록문헌의 ‘문선’은 『동문선』, ‘승람’은 『동국여지승람』, ‘옥주’는 『옥주지』, ‘읍지’는 『중증진도읍지』이다.

20) ①에 해당하는 인물 중 조희직의 작품은 중앙의 관찬 문헌이 아닌, 지방 향토지인 『옥주지』에 수록되었다. 이는 그가 처한 입장이 다른 인물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관료였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유배객으로 공민왕 때 진도에 들어왔으며, 이후 압구정(狎鷗亭)에서 소요하다 생을 마친 창녕조씨의 입도조이다. 때문에 후인들에게 그는 외지인이 아닌 진도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벽과정제영의 성격 파악을 위해서는 작품 창작의 선후 관계 역시 주목을 요한다. 원운과 차운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 현장에서의 수용 및 정전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대체로 차운이 많을수록 해당 원운에 대해 정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였던 것이 종래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위의 <표1>에 정리한 제영들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던바,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벽과정제영의 원운과 차운

번호	원운	차운	형식	운자
1	高兆基	金莘尹, 金克己	오언율시	先 ; 船, 天, 仙, 煙
2	(崔永濡)	蔡寶文, 金鎭商	칠언율시	眞 ; 筠, 人, 輪, 貧
3	曹希直	朴根孫(제2수)	오언절구 (2수)	眞 ; 隣, 人(제1수) 尤 ; 流, 愁(제2수)
4	李淑城	없음	오언율시	灰 ; 來, 堆, 臺, 苔
5	洪 迪	李景義, 申伯周 申 奎, 元致道	칠언배율	靑 ; 庭, 星, 腥, 溟, 聽, 萍, 零, 靑, 汀, 經
6	李喜豊	없음	칠언절구	庚 ; 驚, 兵
7	朴晉遠	없음	칠언절구	尤 ; 秋, 州

위와 같이 제영들의 선후 관계를 정리하고 보면, 보다 부각되는 인물이 고조기, 채보문, 조희직, 홍적이다. 이숙감, 이희풍, 박진원과 달리, 이들의 작품에는 차운이 있기 때문이다. 후인의 창작을 통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 중 고조기의 작품은 무엇보다 벽과정의 첫 번째 제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채보문의 작품 역시 초기의 것으로, 원운에 해당하는 최영유의 제영이 부재한 탓에 원운의 역할까지 대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기와 채보문 모두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개의 문헌에 두루

수록되어, 오랜 세월 동안 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수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조희직은 유배객으로 진도에 들어와 창녕조씨의 입도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최근의 『진도군지』는 진도의 고전문학으로 그의 벽과정제영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sup>21)</sup> 그리고 홍적의 10운 칠언 배율은 창작된 이후 수많은 문인들에 의해 차운된 작품이다. 후술하겠지만, <표2>에 든 네 명을 포함하여 차운한 작자가 무려 열세 명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한 네 명의 문인은 곧 『옥주지』의 <벽과정승개기>에서 거명한 네 명의 소인목객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로 보아 지역 향토 지로서 『옥주지』가 상당히 예리한 시각을 견지하였다 하겠으며,<sup>22)</sup> 이들의 작품이 곧 현장 수용과 관련하여 벽과정제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문헌을 통한 벽과정제영의 전승 및 존재 양상을 살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을 돌려 개인문집을 통한 전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기로 한다. 다음은 개인문집에 수록된 벽과정제영으로, 앞에서 거론하지 않은 작품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표3> 개인문집에 수록된 벽과정제영<sup>23)</sup>

번호	작자명(시기)	제영명(형식)	수록문집
1	金 淨(1486~1521)	渡碧波口號(오언절구)	冲菴集 권3
2	林億齡(1496~1568)	吾邑之西地盡之頭~ <sup>24)</sup> (오언율시) 2수	石川詩集 권3
3	宋麟壽(1499~1547)	珍島碧波亭次冲菴金公淨 韻(오언절구)	圭菴集 권1
4	盧守愼(1515~1590)	和碧波亭韻拔淚書之先錄	蘇齋集

21) 『진도군지』 하(진도군지편찬위원회, 2007), 440~443쪽 참고.

22) 『옥주지』에 비해 『중증진도읍지』는 벽과정제영의 수록에 있어 두어 가지 약점을 보인다. 진도 벽과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원의 사(詞)를 수록한 반면, 벽과정제영 중 가장 많은 차운을 거느린 홍적의 원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23) <표3>의 작성에 김덕진의 「유배인이 남긴 진도 지역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二詩(오언절구) 題碧波亭楹(오언율시) 到碧亭待人(칠언절구) 追送碧波亭(칠언율시)	권2·4·5
5	沈喜壽(1548~1622)	次洪太古迪碧波亭韻 (칠언배율)	一松集 권4
6	柳 根(1549~1627)	寄題碧波亭(칠언배율)	荷衣遺稿(附)
7	韓浚謙(1557~1627)	次洪荷衣珍島碧波亭韻 (칠언배율)	柳川遺稿(詩)
8	李晬光(1563~1628)	次洪荷衣迪留題珍島碧波 亭韻(칠언배율)	芝峯集 권6
9	梁慶遇(1568~ ? )	次碧波亭十韻(칠언배율)	霽湖集 권7
10	李敬輿(1585~1657)	還渡碧波亭(칠언율시)	白江集 권5
11	張 維(1587~1638)	碧波亭次諸公韻 (칠언배율) 2수	谿谷集 권32
12	李 健(1614~1662)	過碧波亭有感(칠언절구)	葵窓遺稿 권2
13	金壽增(1624~1701)	次文谷碧波亭用陽明韻 (칠언절구)	谷雲集 권1
14	金壽恒(1629~1689)	渡碧波津次陽明韻漫吟 (칠언절구) 次翁兒渡碧波韻 (칠언율시)	文谷集 권6
15	金昌協(1651~1708)	敬次家君碧波亭次陽明韻 (칠언절구) 2수	農巖集 권3
16	金昌翁(1653~1722)	碧波亭(칠언율시) 次碧波亭題詠韻 (칠언배율)	三淵集 권4
17	趙泰采(1660~1722)	次碧波亭板上韻 (칠언배율)	二憂堂集 권1
18	趙觀彬(1691~1757)	碧波亭次板上韻 (칠언배율)	悔軒集 권1

이 표에 조사 수록된 벽과정제영은 모두 18작자의 23편 26수이다. 그 중 맨 먼저 이루어진 것이 김정익의 <도벽과구호>이다. 김정익은 기묘사화로

24) 이 작품의 온전한 제목은 <吾邑之西地盡之頭 有亭名碧波 臨巨海之洶湧 實海山奇絕處也 少時數登覽無一語 豈非爲山海之羞 慨然追吟二首>이다.

인해 종종 15년(1520) 진도에 잠시 머물다 다시 제주로 이배된 적이 있는데, <도벽과구호>는 이때 벽파를 건너며 유배객의 서글프고 막막한 심사를 읊조린 작품이다. 이후 노수신이 이를 차운하였다. 특히 노수신은 을사사화로 인해 무려 19년 동안(1547~1565)이나 진도에 유배되었던 인물로, 벽과정뿐만 아니라 진도에 관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경여, 김수항, 조태채도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영을 남긴 사람들이다. 또 이견, 김수증, 김창협, 김창흡, 조관빈은 본인이 직접 진도에 유배되지 않았지만, 유배와 관련되어 벽과정제영을 남겼다.

이에 비해 송인수, 심희수, 유근, 한준겸, 이수광, 양경우, 장유는 관료로서의 이력이 돋보이는 작가들이다. 전라감사였던 송인수는 노수신에 앞서 김정의 <도벽과구호>를 차운하였고, 나머지 여섯은 모두 홍적의 칠언배율 <제벽과정>을 차운하였다.<sup>25)</sup> 이밖에 임억령은 해남 사람으로, 젊은 시절 몇 차례 자신의 향토와 인접한 벽과정에 오른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렇듯 개인문집에 수록된 벽과정제영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유배와 관련된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의 <도벽과구호>가 후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준 작품으로 부각되며, 노수신이 많은 작품을 남겼다. 또 가문을 중심으로 한 차운이나 창작도 이루어졌는데, 김수항과 김수증, 김창협, 김창흡<sup>26)</sup> 및 조태채와 조관빈의 작품이 그렇다. 이는 유배라는 불행한 일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또 문인 관료들 사이에서는 홍적의 작품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25) 유배와 관련된 인물인 김창흡의 <차벽과정제영운>과 조태채의 <차벽과정판상운>, 조관빈의 <벽과정차판상운>도 홍적의 <제벽과정>을 차운한 작품이다.

26) 김수항의 칠언절구 <도벽과진차양명운만음>을 차운하여 김수증의 <차문곡벽과정용양명운>과 김창협의 <경차가군벽과정차양명운>이 창작되었고, 김창흡의 칠언율시 <벽과정>을 차운하여 김수항의 <차흡아도벽과운>이 창작되었다.

#### 4. 맺음말

진도의 벽과정은 지금 비록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날 많은 제영이 창작된 매우 유서 깊은 누정이다. 따라서 벽과정의 내력과 성격 및 현전하는 벽과정제영의 존재 양상을 살핀 것이 이 글이다.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벽과정의 내력을 좀 더 분명히 하였다. 지금까지 창건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몇 가지로 달리 이야기되어 왔는데, 그 시기를 고조기가 활동하였던 고려 중기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하였다. 없어진 시기는 『중증진도읍지』가 편찬된 1924년 이전의 일제강점기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공루가 대개 관청 주변이나 관내의 명승지에 건립된 것과 달리, 벽과정은 벽과진이라는 나루터 길목에 세워졌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물론 벽과진 역시 그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보다는 오랫동안 해상 교통의 요지였으며,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이순신의 명량대첩이 펼쳐졌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때문에 벽과정에는 왕명을 수행하는 관료나, 유배객 또는 유람객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러는 사이 벽과정은 길 위의 분기점으로서, 특히 이별의 누정이라는 매우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슬픔과 기쁨이 벽과정을 떠올리는 대표적인 감성으로 인식되었다.

다음 문헌전승 내용을 통해 벽과정제영의 존재 양상을 살폈다. 수록문헌을 공공문헌과 개인문집으로 구분하여 30여 명의 작품을 살폈다. 이를 통해 공공문헌에는 주로 벽과정의 승경을 찬탄한 관료들의 제영이 수록되었고, 개인문집에는 불우한 처지를 한탄한 유배객의 작품이 보다 많이 남아 있음을 보았다. 그 결과 벽과정제영의 현장 수용이 주로 관료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제영으로는 고조기, 채보문, 조희직, 홍적, 김정, 노수신의 작품이 꼽히는데, 특히 많은 문인들의 차운을 거느린 홍적의 작품에 정전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런 한편 몇 가지 잘못된 사실도 바로잡았다. 일부 문헌에 벽과정제영으로 수록된 이원의 사가 진도의 벽과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지적한 것이 그 하나이다.

벽과정제영과 관련하여 이제 다음 과제는 실제 작품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벽과정이 이별의 누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제영에 슬픔과 기쁨의 감성이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몽규, 『옥주지』.  
김수증, 『곡운집』.  
김수항, 『문곡집』.  
김정, 『충암집』.  
김창협, 『농암집』.  
김창흡, 『삼연집』.  
노수신, 『소재집』.  
박진원 외, 『중증진도읍지』.  
송인수, 『규암집』.  
심희수, 『일송집』.  
양경우, 『제호집』.  
유근, 『하의유고』.  
이건, 『규창유고』.  
이경여, 『백강집』.  
이수광, 『지봉집』.  
임억령, 『석천시집』.  
장유, 『계곡집』.  
조관빈, 『회헌집』.  
조태채, 『이우당집』.  
한준겸, 『유천유고』.

- 『국역 동문선』 I, 민족문화추진회, 1977, 379·385·666·668쪽.  
『국역 동문선』 II, 민족문화추진회, 1977, 65~66·579쪽.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민족문화추진회, 1978, 310~315쪽.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V, 민족문화추진회, 1978, 63~69쪽.

『진도군읍지』, 진도문화원, 1987, 21~41쪽.

『진도군지』, 진도군지편찬위원회, 1976, 567~570쪽.

『진도군지』 상·하, 진도군지편찬위원회, 2007, 440~443쪽.

『호남문화연구』 제18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385~388쪽.

강봉룡, 「진도 벽파진의 고·중세 ‘해양도시’적 면모」,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집, 역사문화학회, 2005, 59쪽.

김덕진, 「유배인이 남긴 진도 지역정보」, 『호남문화연구』 제43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8, 5~8쪽.

김신중, 「전남의 누정과 그 연구 동향」, 『국학연구론총』 제8집, 태민국학연구원, 2011, 243쪽.

류기수, 「중국과 한국의 <무산일단운>사 연구」, 『중국학연구』 제8집, 중국학연구회, 1993, 223쪽.

박병익, 「소재 노수신의 「피구록」 연구」,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학회, 2012, 143~170쪽.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65~67쪽.

이구의, 「고조기의 삶과 시」, 『동방한문학』 제17권, 동방한문학회, 1999, 160~162쪽.

이해준, 「진도 유배인물지」, 『진도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박물관, 1987, 367~397쪽.

투고일 : 2014 1월 14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 Byeokpajeong in Jindo and its Poetical Composition

Kim, Shin-chung

Byeokpajeong in Jindo is Nujeong where lots of poetical compositions remain.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cultural historical meaning of Byeokpajeong and existence aspect of Byeokpajeong's poetical composition. Major content discussed here is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 illuminate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by surveying the appearance of Byeokpajeong which does not exist at present. And concretely examined the period of foundation and ruin of Byeokpajeong, which is still not clear. That is, the researcher confirmed that it was founded in the middle of the Goryeo Dynasty or before then, and disappeared Japanese colonial era, which was before 1924. And above all, the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the specialty that the foundation location of Byeokpajeong has, as the public Nujeong established in major marine transportation point. Due to this specialty, bureaucrats who followed the royal command or unlucky exiled persons often visited Byeokpajeong. Because of this, Byeokpajeong came to have a unique and symbolic meaning, i.e. Nujeong of farewell.

Next,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appearance of the existence of Byeokpajeong's poetic composition through the content of literature transmission. As the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bout 30 writers left poetical works through public literature and private collection of works.

According to status, they were mostly of bureaucrats' poetical composition, who admired Byeokpajeong's fine view and exiled persons' poetical composition, who lamented over their unfortunate position. Representative writers were Go jo-gi, Chae bo-moon, Jo hee-jik, Hong jeok, Kim jeong, No soo-sin, particularly, Hong jeok's works which had lots of Chawoon(using other poet's phrases) stood out. Lastly, pointed out that a task is remaining to investigate how the characteristic of Byeokpajeong was expressed in the poetical composition as the Nujeong of farewell.

**Key words** : Jindo, Byeokpajeong, Nujeong of farewell, Byeokpajeong's poetical composition, Bureaucrat, Exiled person